

## 동양의 저마(라미)와 서양의 아마(리넨)

마라 함은 실은 길고 강한 섬유가 얻어지는 식물의 총칭이다. 종류는 20종류 이상이 있다. 그 중에서 의류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저마와 아마이다. 동양의 마라고 하는 저마는 이락사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써 팽속줄기의 번식이 특히 왕성하다. 고온다습을 좋아하고 특히 일광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저마의 주요산지는 중국 동남부(長江 연안의 각성),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이다. 통상 50일 정도에 1.5~3m까지 생육한다. 줄기의 직경은 0.6~1.4cm 온대지방에서는 2~3회, 열대지방에서는 4~6회도 수확할 수 있다. 줄기는 한 가운데 목질부가 있고 그의 외측에 목질을 싸는 인피가 있고 가장 외측을 표피가 덮고 있다. 섬유는 표피와 목질부 사이에 있는 인피부에서 채집한다. 이러한 상태의 약 60%는 셀룰로스이고 나머지는 펙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당류이다. 섬유는 검질로써 강고하게 접착한다. 그의 단면은 편평한 원형으로써 면섬유와 같은 천연의 꼬임은 없다. 세포막은 극히 두껍고 특히 중공 지름이 크고 명료하여 부정형인 타원형과 같은 형상이다. 한편, 서양의 마라고 불리는 아마는 비교적 추운지방에서 재배되는 1년생 아마과의 식물이다. 원산지는 코카서스에서 중근동 부근이라고 말하는데 주요 산지는 북유럽 특히 구 소련, 발트해 지방의 동구권, 벨기에, 프랑스 등이다. 아마의 수확은 년 1회, 성장한 아마는 0.6~1.2m, 줄기의 직경은 0.8~2cm이다. 그러한 섬유는 역시 접착되어 있으나 저마만큼 강고하지는 않다. 섬유의 단면은 다각형으로써 세포막은 두껍고 중공 직경은 협소하고 특히 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저마와 아마, 양자의 특성을 정리하기로 한다.